그리움이 숨 막혀 그림이 되다

김호석 개인전…10월 30일부터

"김호석 그림을 꼬나 매겨 볼 재주가 이 중생한테는 없다. 다만 한 가지, 그리움이 숨 막혀 그림이 되었다는 것만 아는 만큼 김호석 그림이 8만 4천 중생들 목 타는 그리움을 그 밑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것만은 알겠다."

-김성동 작가의 글 중에서-



'그리움이 숨 막혀 그림이 된 김호석 붓' 전이 10월 30일~11월 5일 아라아트센터서 열린다. 사진은 운문사 스님을 소재로 한 '잡초캐다'

'그리움이 숨 막혀 그림이 된 김호석 붓' 전이 10월 30일~11월 5일 아라아트센터 2층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닥종이에 천연잿물로 그려낸 일상의 담박한 모습을 27점의 그림으로 펼쳐냈다.

김호석 작가의 그림은 일상의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맑고 밝고 가볍다. 그의 그림은 일상의 포착이며 그 자연스러움에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다.

"일상속에 부처가 있어요. 딸은 스마트폰에 눈길을 돌리고 눈이 어두워 가는 엄마는 이런 딸을 이해하기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죠. 그리고 풀을 뽑는 운문사의 스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을 뽑고 있죠. 산에 함께 올라간 비구 스님은 꽃 속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허허' 하고 웃죠"

작가는 자본주의의 탐욕에 물들어가는 세상, 질주할 줄 모르는 세상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고 따뜻한 내면의 인간미를 또 세상 삼라만상의 본질을 끄집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사로운 일상 속에 법이 있다고 보는 작가는 삶속에서 맑고 투명한 것을 찾아내고자 했다.

"우리 시대에는 따뜻함, 선한 행위 자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

일상의 담박한 모습 포착해
시대의 따뜻함 담아내고자

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곤경에 처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절대적 심연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 세상에 따뜻한 죽비를 날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의 바람은 그리움이 되었고 따뜻함을 그려내는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일타 스님, 광덕 스님, 지관 스님 등 우리 시대 스님들의 생전 모습을 담아내기도 한 김호석 작가. "성철 스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스님의 수행처를 여러번 다니며 만행을 했죠.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스님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대 화두는 인물화라고 생각하는 그는 우리 사회가 좀더 밝고 맑아졌으면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현승조 작가의 '平 等 心' 전

11월 4일까지 스페이스 선+에서

현승조 작가의 '平 等 心 (평등심)' 전이 삼청동 스페이스 선+에서 11월 4일까지 열린다. '2013 스페이스선+ 추천작가' 로 선정된 현승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감모여재도, 수월관음도 등 다양한 기법을 추구한 불화 12점을 선보인다.

2008년 이후 5년만에 갖는 두 번째 개인전으로 작가는 평등과 자비심을 담은 작품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특히, 감모여재도는 '조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해 그분들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란 뜻으로 집안에 사당이 없거나 외지에서 지방(紙榜)으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형식의 그림이다. 이런 기법은 민화에 많이 남아 있으나 이를 불교식 영가를 위한 형식으로 작가가 내용



현승조 작가의 '감모여재도'

을 바꿨다. 현승조 작가는 "민화의 유교적인 신앙 사상 속 불교적인 모습을 포착해 작품에 담아냈다"고 설명한다.

현승조 작가는 1978년생으로 용인대 예술대학원 회화학과(불교회화전공)를 졸업하고 현승조 불교회화전(라메르 갤러리), 불교회화 초대전, 화불동연전, 붓다를 그리다 등의 전시를 열어 왔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달항아리에 등 밝히니 온 세상에 광명이…

지유 스님 한지사랑 작품전



달항아리 안에 부처님이 나투셨다. 밝고 둥근 등이 아래를 비추니 세상은 일순간 밝아졌다. 또 온 세상을 감싸안을 듯한 자비로운 미소의 반가사유상에 등이 비치니 세상은 환한 미소로 번져 나갔다.

지유 스님(마산 학촌사 주지)의 한지 사랑전이 11월 4일~10일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 제 2전시실에서 열린다. 청동 혹은 목재의 느낌이 나지만 모두가 한지로 빚어냈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50여 점의 작품들을 통해 한지의 아름다움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유독 많다. 나뭇잎등, 항아리등, 반가사유상 등… 다양한 형태의 등은 그 모양도 아름답거니와 스님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더더욱 새롭다.

"등은 어둠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등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에요. 늘 이를 어떻게 작품화할까를 고민해요. 이번에도 25점 정도의 등작품을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전기선을 연결해서 작품을 완성할 만큼 이제는 전선 작업에도 능숙해요."

이들 작품 중에서도 항아리 등은 유독 눈에 띈다. 달항아리에 네모의 공간을 내고 불두를 넣고 은은한 등을 비추니 세상은 평화롭고도 밝다. "신문지에 풀죽을 먹여 오돌토돌한 느낌의 질감을 주었고 표면에 검은 한지를 붙여 차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불두는 제가 가지고 있는 15점의 불두 중 상호가 좋은 것으로 모양을 만들고 위로는 등을 연결했습니다. 나는 스님이니 불두를 넣었지만 일반인들은 인형이나 다른 형상을 넣어 응용을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고색기법 한지 작품 50점 전시
반가사유상 · 항아리 '등' 으로 탄생
전기선도 직접 연결해 작품 완성
11월 4일~10일 성산아트홀서



스님은 다양한 소품들을 한지로 제작했다. '만자 서랍장'



지유 스님의 한지 사랑전이 11월 4일~10일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 제 2전시실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항아리 등'

스님은 돌 알루미늄 철사 등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지 공예의 소재가 된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스님은 만자 서랍장, 불화 등 불교적 작품의 응용은 물론이고, 사군자 등 전통문양을 넣은 칠단 서랍장, 당초문양 서랍장, 사각상 등 다양한 생활소품들을 한지로 만들어 냈다.

"2000년도부터 한지공예를 시작했어요. 한지는 웬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 작품 역시 절집에서 보는 것들이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작품이 되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물론 대부분은 오색한지를 많이 이용해요. 이런 작품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산만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검정 한지에 락스와 물을 섞어 농도 조절을 해서 고색기법을 표현해냈습니다."

마산 학촌사 주지로 포교활동에 바빴던 스님은 한지공예 전시는 이번이 꼭 10년만이다. "그동안 포교활동을 하느라 작품 만들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나 감각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한지공예고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희열을 느낄 수 있기도 해요. 저도 3개월만 배우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13년 동안 한지공예를 하고 있어요. 이번 전시에 많은 이들이 오셔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한지공예를 감상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스님은 대중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공예 수업도 병행할 생각이다. (010)2379-527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 선묘불화 한자리에 모았다

동국대박물관 개관 50주년 특별전

한국의 선묘불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박물관은 11월 22일까지 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개관 50주년 특별전을 갖는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아미타삼존도, 치성광여래강림도, 6세기 아미타대보살도 등 고려와 조선, 근대기의 선묘불화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고려 공민왕 때 제작된 고려불화 금선묘아미타삼존도는 비단 위에 금가루를 이용해 제작한 고려불화로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의 한 사찰에서 소장해왔다.

동국대박물관은 "고려불화는 160여점이 알려져 있으나 제작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채색불화는 13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작시기가 명료한 이 그림의 가치는 실로 막대하다"며 "선으로만 모든 형상을 묘사해야 하는 선묘불화로 고려불화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문양을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약사삼존도(1565년) 역시 주목할만하다. 문정왕후는 아들인 명종의 건강과 왕실의 안녕, 자손번창을 기원하며 400폭의 불화를 발원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약사여래, 미륵여래를 각각 100폭씩 완성했다. 이에 경기도 회암사에서 완성법회를 열었으며 그 공덕을 널리 펼치기 위해 이를 전국 사찰에 나누어 봉안케 했다. 현재 400점 중 6점만이 전하고 있고 약사삼존도는 그 중 하나다.

고려 금선묘아미타삼존도 등 '눈길'
11월 22일까지 박물관특별전시실서

이밖에도 선묘불화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음을 보여주는 아미타삼존도(1581년), 조선전기의 도상을 계승하고 있는 유일한 작품인 치성광여래강림도(1644년), 10대 제자가 포함된 아미타설법도(1781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정혜숙 기자



동국대박물관은 11월 22일까지 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개관 50주년 특별전을 갖는다.고려불화 '금선묘아미타삼존도'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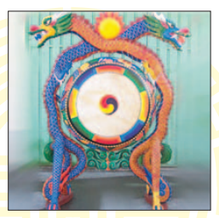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 기	가 로	세 로	높 이	재 질
50개꽂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레스
100개꽂이	150cm	90cm	150cm	폴리카보네이트
대조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 영 금 속
TEL 031)466-3356 H·P 011-269-3356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